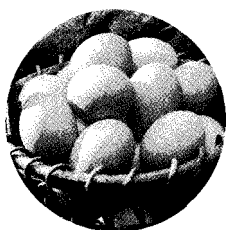


* 등급정보 (계란) *



▷ 21업체에서 생산한 3천5백11만8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은 81.4%, 1등급은 15.4%, 2등급은 0.4%, 3등급은 2.8%를 차지, 전월대비 2백15만2천(5.8%) 감소, 전년동기(20개 업체, 2천8백22만7천개)대비 6백89만1천개(24.4%) 증가. 근월 누계는 1억2천4백97만6천개로 전년동기 누계 대비 2천2백29만3천개(21.7%) 증가

계란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종량 규격	개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09년 1~4월	124,976	105,291	84.2	16,856	13.5	546	0.4	2,283	1.8
'09년 3월	37,270	29,613	79.5	6,795	18.2	147	0.4	715	1.9
'09년 4월	35,118	28,599	81.4	5,413	15.4	138	0.4	968	2.8
왕란	162	141	87.1	21	12.9	-	-	-	-
특란	26,844	22,360	83.3	4,352	16.2	75	0.3	58	0.2
대란	8,098	6,085	75.1	1,040	12.8	63	0.8	910	11.2
중란	14	14	100.0	-	-	-	-	-	-
소란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신임회장 취임

한국계란유통협회 2기 회장에 강종성 신임회장 취임식을 지난 4월 28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가졌다. 최홍근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협회를 사단 법인화한 것이 큰 보람이다. 앞으로 신임 회장과 임원들은 계란유통협회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종성 신임회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신선한 계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통업자 역할이다. 특히 생산자와 공동번영의 길을 걸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또 "협회발전이 최우선이다. 협회발전을 위해 생산자단체·정부·학계·소비자 등 관련 단체와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출발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영 오인환 ▲총무 배영수 ▲유통 박창록 ▲자조금 김수동 ▲친목 신동환 ▲홍보 안상현 ▲상벌 신종생 ▲교육 장용순 ▲권익 김진목. 위원▲교육 박상도 ▲권익 원종덕 ▲유통 엄영학·김인태·음귀섭·전순택 ▲감사 유광연 ▲서기 이원섭.

↓ 계란섭취량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없어

계란섭취량은 혈중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난 2월 16일 영국BBC방송이 보도했다. 현재까지 끊임없던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영국영양재단(BNF)은 런던 서리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방송을 통해 밝혔다.

런던 서리대 연구팀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 고콜레스테롤의 원인은 주로 흡연, 과체중, 운동부족 등이었다. 음식 중에서도 주요 원인은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포화지방이었다. 연구팀의 브루스 그리핀 서리대 교수는 "계란이 혈중콜레스테롤 농도나 심장병과 관련이 깊다는 뿌리 깊은 오해는 바로잡혀야 한다"며 "계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영국보건재단도 이미 2년 전 '일주일에 3개 이상 달걀을 먹지 말라'는 기존 권고를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영국 식품기준청은 영국인 500명 가운데 1명꼴인 고혈중 콜레스테롤 유전력 보유자는 일주일에 2~3개로 달걀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